

From religion to non-religion: the paradigm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Yeongjoo Kim

Daej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progression toward a non-religious era and to identify the orientations that religious education ought to pursue within this context.

[Contents] In this paper, the reasons for the progression toward a non-religious era are traced to the shadow of religion—namely, the wars and conflicts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it—and the causes of non-religiosity in Korean society are identified as stemming from the misconduct and deviance of religious institutions and their leaders. The study further examines 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Nordic countries, where non-religious trends are particularly prominent, and analyzes their approaches to religious education. In times of transition, religious education requires a paradigmatic shift. Accordingly, this paper also delineates the directions that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must pursue as it undergoes such a transformation.

[Conclusions] The progression toward a non-religious era is an inevitable development. However, this transition is not exclusively negative. By elucidating the underlying causes that have made such an era unavoidable, it becomes possible to identify critical turning points for reflection and reform. Moreover, this recognition invites a serious reconsideration of the future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It is imperative that the call for a paradigmatic shift in religious education no longer remain an empty slogan, but instead lead to substantive and meaningful change.

[Keywords] Non-religious era, Religious education, Personality education, Religiosity

* **Corresponding author** Yeongj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Contents, Daejin University)
E-mail : eureka0710@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종교에서 무종교로: 전환기의 종교교육 패러다임

김영주

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무종교시대로의 진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무종교시대의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무종교시대로의 진행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인 기독교권으로 분류되던 유럽은 무종교인으로 넘쳐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무종교인의 숫자가 종교인수를 넘어섰다. 무종교시대로 진행되는 이유를 밝히고, 종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무종교시대로의 진행 이유를 전쟁과 갈등을 낳은 종교의 그림자에서 찾으며, 한국 사회에서의 무종교 원인을 종교와 종교지도자들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무종교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국과 북유럽의 종교지형을 살펴보고, 이들의 종교교육을 검토한다. 전환기의 종교교육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종교교육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바, 종교교육이 지향할 바를 밝힌다.

[결론] 무종교시대로의 진행은 정해진 수순이다. 그러나 무종교시대로의 진행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무종교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 이상 공염불로 끝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무종교시대, 종교교육, 인성교육, 종교성

I. 서론

‘무종교(인)’ 혹은 ‘종교 없음’은 특정한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거나 특정 종교조직에 속하지 않는 현상이나 관련 인구를 지칭한다(Woo, 2022: 2). 무종교(인)의 확산은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니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무종교시대라고 칭하고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어쩌면 종교가 인간사회에 등장하면서부터 발생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서구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종교 현상에 대해 현상학적·사회학적 접근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종교시대가 도래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만 밝힐 수 있다. 그래야만 해결책 내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신(神), 즉 절대자이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개별 종단에서는 자신의 신만이 유일한 절대신이며, 여타의 신은 부정한다. 고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폭력인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성을 중시한다는 현대사회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도 종교전쟁이 진행 중이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학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종교가 있는 셈이다. 아무튼 우리 종단, 그리고 내가 신앙하는 신이 유일하며, 다른 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라는 종교는 B, C, D, E라는 종교를 부정하고, B라는 종교는 A, C, D, E라는 종교를 부정하며, C라는 종교는 A, B, D, E라는 종교를 부정하는 현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같은 종교 안에서 발생하는 종파 갈등. 종파 갈등 또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종파 갈등이 종단 갈등보다 더 치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교리 체계 안에서의 갈등이다 보니, 교리의 정당성을 넘어, 교권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더 치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무튼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나의 종교는 있지만 남의 종교는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종교 현실을 무신론자 또는 무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가 있기는 한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다면, ‘종교가 없는 상황’, ‘무종교시대’임은 분명한 것 같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가 없었던 상황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없을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연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이 글에서는 무종교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종교 갈등으로 인한 전쟁과 코비드-19를 겪으면 적나라하게 드러난 종교계의 모습들을 통해 밝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신앙 교육 위주의 전통적 종교교육에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종교

시대의 종교교육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 북유럽은 무종교시대와 관련하여 종교교육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종교교육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한국종교지형에서도 무종교시대의 종교교육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물론 인성교육이 새롭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는 미미했다.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던 것도 한 이유가 된다. 그러했기에 다시금 논의의 장에 올려놓아야 한다. 실질적인 접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의 대상 또한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특정 계층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왜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는가

1. 전쟁과 갈등을 낳은 종교의 그림자

전쟁은 가장 잔혹한 폭력의 장이면서 한편으로는 잔혹한 폭력이 가장 명백하게 정당화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전쟁에서는 약탈과 파괴가 난무하고 살인이 정당화된다. 총을 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살인도 정당화되고 조장된다. 여기에는 어린이나 여성, 노인도 예외는 아니다. 적국으로 규정된 이상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는 곳이 전쟁터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두 전장(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다.

전쟁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종교전쟁이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에서 특정 종교나 국가를 적으로 규정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난 ‘칼을 든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Josh 5:13)라고 묻는 것에서, 적과 나를 구분하는 편 가르기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이라는 편 가르기를 통해 자행되었던 십자군 전쟁이 무자비한 살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도 “너희를(무슬림) 상대하여 싸우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Qur'an 2:190)라고 하여 적대자들과의 싸움을 의무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먼저 침략할 것을 적시하지는 않는다. “침략하지 말라. 하나님은 침략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Qur'an 2:190)라고 한 표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폭력은 자행된다.

전쟁이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종교전쟁 또한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적으로 규정한 이상 그 집단에 대한 폭력은 종교의 재가(裁可)를 받게 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면서 이른바 ‘성전’ 혹은 ‘의로운(정의의) 전쟁’으로 여겨지게 된다. 심지어

어 1980년에 발발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과 같이 전쟁 당사국들이 동시에 ‘성전’을 선포하는 사례도 있고, 한 종교 내의 교파나 종교 사이에서도 서로 정의의 전쟁을 선언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테러나 납치 살해와 같은 폭력마저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惡用)하기도 한다(Ryu, 2022: 16). 아무튼 종교 간에 발생하는 전쟁 또한 편 가르기를 통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인지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같다는 이유로 옹호하거나 비난하기도 하며, 군수품 지원에서부터 병력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전하기도 한다.

종교 혹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은 가장 잔혹하고 파괴적이며 그 어떤 폭력보다 더 분명히 드러나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Ryu, 2022: 12). 절대적 신념 체계인 종교를 배경으로 전개된 전쟁이기에 패배는 그들이 신앙하는 신들의 패배이며, 종교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종교전쟁은 무조건인 승리로 귀결되어야만 한다.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그래서인지 종교를 배경으로 발생하는 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 비참하며 폐해 또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협상이나 타협이 없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한다. 종전(終戰)을 위해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쪽이 항복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끝나는 것이다. 실제로 1995년 11월 4일, 중동 평화회담지지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던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유대교 근본주의를 강조하는 극우 강경파 청년에 의해 피살당한 사례가 있으며, 2024년 7월 3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상을 지휘하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스라엘 군 당국이 암살했다. 둘의 경우 모두 ‘협상은 없다’라는 명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지 전자는 극우 청년에 의해 자국 총리가 피살된 경우이고, 후자는 완전한 승리와 항복을 원하는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하마스 지도자가 피살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공개된 기밀은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 과거에는 특권층에만 제공되던 정보가, 그렇게 해서 기밀이 되었던 정보가 이제는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다. 종교전쟁 또한 그러하다. 당시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로 발생했던 전쟁들이, 공개된 기밀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실은 종교 갈등이었다. 그리고 잔혹한 전쟁의 한 가운데 종교가 있다는 사실은 책과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학습되어 진다.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전쟁은 전체 전쟁에서 6-7% 정도에 그치지만 대부분의 분쟁 발생 배후에 종교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종교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종교전쟁을 통해 살펴보자.

종교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고전은 아마도 십자군 전쟁일 것이다. 십자군 전쟁은 승패를 떠나 종교적 순수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야욕과 세속적 탐욕만이 존재한 전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교회는 교세확장을 위해 이교도에 대한 살상과 약탈을 허용하고 이를 ‘신의 뜻’이라고 정당화했다. 비기독교인들 모두가 이단자들로 간주되었고,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되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을 유대사원에서 불태워 죽였으며, 알 아끄사 사원은 마

곳간으로, 바위의 황금 돔사원은 교회로 탈바꿈하였다(Hwang, 2010: 11). 이러한 모든 만행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4차 전쟁에서는 자의적 소년십자군으로 원정에 나선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다. 이것은 마녀사냥을 통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죄 없는 사람들을 살해하면서 자의적 명분으로 내세운 ‘신의 정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악행이었다(Maalof, 2002: 6). 종교를 외면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중동 전쟁 또한 종교전쟁이었다. 인류의 대재난으로 불리는 코소보 내전 또한 첨예한 종교갈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코소보 내전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절반 가량인 100만명 이상의 알바니아계가 인근 마케도니아 및 알바니아로 이동하는 전대미문의 난민위기를 초래하였다(Yeon, 1999: 129). 코소보에 발생한 일련의 상황을 UN은 ‘인류의 대재난’이라고 규정하였다. 보스니아 내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2년 4월에 발생하여 1995년 11월에 막을 내린 내전으로 20여만 명의 무슬림이 사망하였고, 250여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으며(Lee, & Lee, 2001: 243), 1995년 7월 스레브레니차 대학살(Srebrenica massacre)이 발생하였다(Oh, 2023: 27).

9.11테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를 9.11테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현대 문명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9.11테러는 두 개의 인권과 두 개의 가치관이 상충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부각시켰으며, 명분 없는 비도덕적 전쟁을 몰고 왔다. 테러를 근절하고 테러리스트 조직을 와해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시작한 무차별 공격은 결국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대량살상으로 나타나 공식적으로 5,0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보도되었다(Lee, 2002: 144).

마지막으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살펴보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동지역의 주요 분쟁이자 현대 국제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분쟁 중하나다(Cha, 2025: 168). 세계 각국에서는 진영을 달리하여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각 진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서방 세력과 이슬람 문화권의 대리전을 방불케 한다. 아무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5년 9월 기준,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 6천에 이르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 전체 사망자가 군인을 포함해 약 2천 명인 것을 고려하면 2년간의 전쟁 동안 사망자만 6만 8천 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Yeon-hap news, 2025. 10. 9).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 대부분이 혼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하마스 조직원이 숨어있다는 난민촌, 학교, 보건시설 등에 대해서도 폭격을 멈추지 않아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Yeon-hap news, 2025. 10. 9). 이외에도 다수의 종교관련 전쟁이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그 조금만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그 조금만큼의 관심조차 기울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관심을 가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며 그 자체가 피로도를 배가시키기 때문이다. 최고선의 이름

으로 일어난 파괴의 문제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된,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만 존재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원하던 원하지 않든 정보는 유통된다. 그 정보로 인해 종교전쟁은 생생히 방송을 타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바탕으로 현재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의 배경에 종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종교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종교를 불신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고착화된, 포용하지 못하는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종교전쟁이 종교적 신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는 그냥 전쟁일 뿐이다. 폭력이 정당시 되는, 그래서 가장 잔혹한 폭력이 행사되는 현장일 뿐인 것이다. 종교는 더 이상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빌미로 폭력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이다. 종교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할 뿐 인 것이다.

2. 한국 사회의 무종교화 요인

수없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 중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는 종교, 종교 지도자이다. 그렇게 믿어져 왔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제 종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며, 종교인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신뢰는 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Kim, 2022: 119).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정보는 더 이상 고위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택에 이제 대중들은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정보가 대중화·평준화·민주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이처럼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 속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종교다. 종교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 변화의 속도와는 별개로 그들만의 속도로 나아간다.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였으면, 조용히 감춰졌을 내용들이, 그리고 당연히 생각되던 것들이 정보가 대중화되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에 역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약자를 보듬는 것이 종교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 또한 종교였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였다.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흔들린 지 오래다. 지금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종교의 공공성이 위협받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공공성이 위협받는, 그리고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상황이 팬데믹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팬데믹은 그동안 묵혀왔던 종교에 대한 비판과 불신에 불을 지폈다. 한국사회에서 바이러스의 양산과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종교단체가 지목되었으며,

일부 종단의 반(反) 방역 현상은 바이러스에 의한 재난이 ‘종교적 재난’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종교의 존재 이유를 묻기도 했다.

종교 지도자의 일탈 또한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 종교가가 저지르는 형법범죄 유형은 절도나 풍속범 같은 일반범죄는 비교적 드물고 미신을 이용한 사기와 성범죄, 집단적 배타성에서 나오는 폭력성이 사회문제로 되곤 한다(Lee, 2020: 175). 종교와 관련된 범죄실태를 살펴보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성직자(현재 ‘종교가’로 표기됨)가 저지른 범죄는 2014년 5천168건, 2015년 5천816건, 2016년 5천582건, 2017년 5천249건, 2018년 5천260건에 이른다. 성직자 범죄는 다른 전문직군(의사·변호사·교수·언론인·예술인·기타)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범죄유형으로 사기·폭행·상해·성범죄가 많았다(Lee, 2020: 175).

모든 범죄행위는 대중의 지탄을 받는다. 그 중 성범죄는 아주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다. 성범죄 피의자나 가해자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 안에서’ 또는 ‘종교 지도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한다. 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유형은 오랜 시간 맺어온 관계를 이용한 범죄와 종교 지도자와 신자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이용한 범죄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여기에는 종교가 지니는 집단적 폐쇄성 또한 한몫하고 있다. 실제 종교가에 의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성폭력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강력범죄 중 평균 91.8%를 차지한다는 사실(Lee, 2020: 178)은 이들 범죄가 종교가 가진 집단적 폐쇄성과 종교 지도자와 신도라는 위계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잘 설명해 준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종교 관련 다큐는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종교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종교의 자정 능력’이다. 그럴 때면 항상 나오는 내용이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염불이 그치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종교를 외면하게 하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도 메스컴을 통해 등장하는 종교지도자의 정치지향적 행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종교 외면에 불을 붙인다. 종교지도자의 정치지향적 행동과 종단의 정치 집단화로 파생된 공권력 도전현상은 집단범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Lee, 2020: 175). 종교가 물질을 지향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순간 종교의 본질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특히 종교는 특별한 정치체제나 정치적 이념 혹은 정치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이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혹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Lee, 2001: 458).

우리 사회가 무종교 사회로 진행되는 것을 종교를 신앙하지 않고 물질을 추구한 결과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세속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

재 사회의 물질적인 부분만을 보고 사회가 세속화되어서, 그래서 종교를 멀리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종교가, 종교 지도자가, 그리고 종교인들이 과연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

사실 ‘무종교시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대중들이 종교를 외면하는 현상과 관련해서 종교(인)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자정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정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싸늘하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인지 10년 단위 조사가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4,970,766명이었던 종교인은 2015년조사에는 21,533,674명으로 약 344만 명이 줄었다(Kim, 2021: 46). 같은 기간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구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통계 자료는 우리 사회가 이미 ‘무종교시대’로 진입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지일보가 2015년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8차례의 기획 기사로 연재한 ‘한국종교 30년 어떤 변화가’라는 기획 기사는 종교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를 살펴보자.

1. 주머니 털어 ‘헌금’낸 교인... 배불리는 목회자(Cheonji ilbo, 2015.3.4.).
2. 십일조는 교인의무? 헌금 강조하는 개신교회(Cheonji ilbo, 2015.3.9.).
3. 신 가르침보다는 자기행복 찾는 교인 늘어(Cheonji ilbo, 2015.3.11.).
4. 경전에 나온 ‘신·창조·심판’ 안 믿는다(Cheonji ilbo, 2015.3.18.).
5. ‘교회·성당·사찰’ 거부하는 종교인 늘어(Cheonji ilbo, 2015.3.25.).
6. 돈·권력 집착하는 무너만 성직자 늘어 ‘꼴머리’(Cheonji ilbo, 2015.3.30.).
7. 신뢰 떨어진 종교계... ‘종교 참뜻 찾으라’(Cheonji ilbo, 2015.4.1.).
8. “‘종교인 본래의 뜻 벗어나’ 레드카드 든 국민들”(Cheonji ilbo, 2015.4.5.).

10년 전 기사 내용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8개 기획 기사의 내용은 연도만 바뀌어서 다시 연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이다. 바뀐 것이 별로 없다는 의미이다. 10년 전에도, 아니 훨씬 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단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도 수가 감소하는 것을 물질 만능의 세속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단일한 대응일 수밖에 없다. ‘무종교시대’로 접어드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무종교시대를 걱정하는 이 순간에도 종교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종교 밖의 세상에 배타적이고, 타 종단에 배타적이고, 타 종파에 배타적이다. 자신과 신앙을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게 배타적이며, 배타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이들조차 마음을 열어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울림을 줘도 부족한 종교가 가십거리가 된 지는 오래다. 종교에 대한 피로도는 높아갈 수밖에 없다.

종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세속화 때문이라 하지만 대중들의 눈에는 오히려 종교가 세속화 되어가고 있다. 성스러움으로 남아있어야 할 종교가 더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종교에서 악 또는 죄라고 금기시하는 것들이 오히려 종교에서 더 많이,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가 대중화되면서 밝혀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대중이 종교의 세속화를 걱정하고 있다.

III. 무종교시대의 종교교육 모델 탐색

1. 영국과 북유럽의 사례로 본 종교교육의 변모

유럽과 미국, 그리고 호주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주를 이루던 많은 국가들에서 ‘무종교’현상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종교인구 수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위의 자리를 무종교가 차지했다.

유럽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분류된다. 그런데 지금은 무종교인이 넘쳐난다. 린다 우드헤드(L. Woodhead)는 영국의 무종교인의 비율이 51%로 유럽에서 최초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겼으며, 18-24세는 69%, 25-39세는 63%가 무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Woodhead, 2017: 252).

그렇다면 영국의 무종교 현상은 특정 계층, 특정 연령 등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 무종교인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며, 교육 수준도 고르게 분포한다. 모든 사회계층과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모든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45%가 이후 무종교자가 되며, 무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95%가 계속 무종교자로 남는다. 이제 무종교는 ‘끈끈(sticky)’한 정체성이 되고 있다”(Woodhead, 2017: 252-253)는 우드헤드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노르딕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인구의 다수가 국교인 루터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종교적 참여와 관여의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덴마크의 종교 상황을 살펴보자. 덴마크는 국교가 존재한다. 복음주의 루터교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의 90%가 루터교 신자였으나, 2020년 현재 74.9%로 줄었으며(Böwadt, 2020: 2), 그 마저도 1/3-1/5정도만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전체 덴마크인 중 약 1/3이 무종교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Böwadt, 2020: 2-3). 명확하게 정의된 신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표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보다는 과학에 의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

(Buckser, 2003: 59)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그럼에도 덴마크 문화에서 종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덴마크 사람들 대다수는 지금도 국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세를 내며, 교회에서 올리는 결혼식을 선호한다. 목사 앞에서 아이가 세례를 받게 하는 사람도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나 영적인 확신 때문에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보다는 문화적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결혼식 등을 순전히 ‘전통’이나 ‘낭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Zuckman, 2012: 23).

스웨덴은 신앙과 예배 참석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국가 중 하나이다(Kasselstrand, 2015: 275). 뿐만 아니라 2000년에는 스웨덴 교회가 중앙 정부와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약 500년간의 국교 지위를 마감하였다(Lundasen, 2022: 630).

스웨덴에서 인격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스웨덴 사람은 채 20%도 되지 않으며, 신을 믿는 스웨덴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Hamberg, 2003: 48). 덴마크와 스웨덴인은 대부분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대다수는 문화적 전통이나 역사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기독교인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 기독교인의 의미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일 뿐이며, 기독교인을 설명할 때 하느님이나 예수, 성경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메시아였다고 믿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들은 거의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Zuckman, 2012: 26).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전통적·제도적으로 소속되어 있던 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es)로부터의 이탈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이 2008-2018년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무종교인(Nones)의 경우 기독교인들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 2008-2018년 기간에는 두 그룹 모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가 증가하였다(Lemos & Gonzales, 2021: 11). 이들 두 나라의 경우 단 8%만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다(Böwadt, 2020: 2). 신(神)의 존재에 관해서도, 비종교인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며 그 회의성은 젊은 세대의 ‘논스(nones)’일수록 더욱 강해진다(Woodhead, 2017: 255-256). 무종교현상이 비단 위의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국가에서 대중들이 덜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유럽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 그리고 종교를 가진 이주민의 증가와 맞물려 급격한 종교 지형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유럽 사회의 전통을 유지하던 제도화된 기독교의 쇠퇴와 더불어 무종교인의 등장 등 종교적·비종교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구 사회에서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시민성(citizenship)과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종교와 세계관(religion/worldview)의 역할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종교교육은 어떤 문제와 직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유럽 전역에서,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이 시민성 교육에 기여한다는 점이 학자들의 지속적 연구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비종교적 다양성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유럽평의회(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의 ‘종교·신념 교육 권고안’은 각국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 전역에서의 종교교육은 시민성 형성이라는 더 넓은 교육적 목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haw & Barry, 2025: 3).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의 종교교육을 살펴보자.

영국의 종교교육은 시민성 교육과 함께한다. 영국에서의 시민성 교육과 종교교육의 관계는 교육에 대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전후 기독교적 시민성 재구성의 복잡한 역사에 의해 형성되었다(Freathy, 2008: 295). 이후 두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이 상당히 겹친다는 점을 활용해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특히 다양성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종교교육을 중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표와 내용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교육과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는 종교교육과 시민성 교육의 사이에는 여전히 ‘상호 방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 및 국가의 세속성에 대한 가정, 그리고 종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오래된 관념, 그리고 ‘종교’와 ‘시민성’ 모두를 축소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현상이다(Shaw & Barry, 2025: 4-5). 이는 달리 말해, 종교교육이 시민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종교교육이 ‘종교의 교육’이라는 오래된 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통적인 방식의 세계종교에 대한 접근은 종교를 고정된 신념과 관습의 결정체로 제시해 실제 청소년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국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은 모두 주변화된 상태라는 점이다. 많은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 교육적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교사교육 예산 축소와 교사 충원 감소도 위기를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Shaw, & Barry, 2025: 4).

덴마크는 스웨덴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국가 중 하나로, 조사에 따르면 단 8%만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공교육(Folkeskolen, 1~9학년)에서는 종교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할 경우, 종교교육은 면제된다(Böwadt, 2020: 2).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의 핵심은 루터교 기독교(Evangelical Lutheran Christianity)와 ‘삶의 철학(Philosophy of Life)’이다. 교과목으로서의 ‘기독교학(Christian Studies)’은 네 가지 교육과정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삶의 철학과 윤리’, ‘성경 이야기’, ‘기독교’, ‘비기독교 종교들’이 그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27).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삶의 철학’이다.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삶의 철학과 윤리’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 통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Böwadt, 2020: 7).

덴마크는 역사적으로 학교와 교회의 관련성이 상당하다. 현재는 이 연결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덴마크의 종교교육은 공식적으로 루터교 기반의 기독교학

에 기반하고 있지만 ‘삶의 철학(philosophy of life)’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특히 덴마크의 신학자인 K. E. 뢰스트럽(1905-1981)이 신뢰, 사랑, 자비 등을 ‘주권적 삶의 표현들(the sovereign expressions of life)’이라고 한 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종교가 더 이상 개인의 생활과 사회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삶’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종교교육은 종교 문해력(Religious Literacy)과 윤리교육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종교교육 커리큘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교 문해력 부분이다. 종교교육에서 종교 문해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교교육이 편견과 갈등을 줄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이 점점 더 다종교화되고 다문화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로 간주 된다(Enstedt, 2022: 27). 종교 문해력의 부족은 타종교와 타종교의 교리, 나아가 타종교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낳으며, 이러한 잘못된 이해가 차별과 폭력, 심지어는 전쟁으로도 이어진다. 종교 문해력 교육은 종교 문해력의 부재가 세계가 겪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된 상황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종교교육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분야는 윤리교육이다. 스웨덴의 종교교육은 “학생이 다양한 삶의 문제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윤리적 태도에 대해 성찰하도록 자극하고,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개인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kolverket, 2019: 215). 이는 종교교육이 윤리적 요소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기존 사회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자신과 주변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Skolverket, 2019: 215)는 것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윤리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타인, 특히 다른 종교에 소속된 사람이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화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종교교육에서 윤리교육이 중시되는 이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시민성 교육과 덴마크의 삶의 철학, 그리고 스웨덴의 종교 문해력 교육과 윤리교육은 각 나라들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명칭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전통적인 ‘종교의 교육’에서 벗어나 ‘종교적 교육’,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다원화, 다종교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함께 한다’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 함양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한국형 종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2015년 7월 21일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

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Na & Youn, 2015: 77).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인성교육을 “인간의 본성을 올바르게 건전하게 함양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과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법제화된 데에는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와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에 힘입은 바이다. 종교인구가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간성 상실을 우려하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종교가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는가”라는 의문과 ‘종교의 존재이유’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과 ‘후천적 교육’의 중요성 부분이다(Koo, 2015: 26). 이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는 인성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성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변화가능한 것이며, 인성교육은 도덕성과 사회성 함양이 주된 목적이 된다. 즉, 인성의 개념을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품과 역량’과 같은 실천적인 덕목으로 한정 지을 경우에는, 교육과 실천을 통해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Seong, 2015: 289).

인성이 교육의 대상이라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물음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왜 인성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인성교육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품과 자질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입시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 그만큼 입시 경쟁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교육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듯이,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런데 등을 보여주고 있는 어른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며, 그들이 일삼는 부정한 행위들을 보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청소년만 교육하면 학교폭력은 없어질 것이라는 관점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결국 기성세대들이 자성하는 모습을 통해, 자정(自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이 법제화되었다는 측면 외에는 가시화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나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인해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수능 위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실기 등 거의 모든 전형에 학교 폭력과 관련한 기록이 반영됨으로써 학교폭력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시한폭탄임에는 분명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덕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인성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핵심 가치 또는 덕

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직, 책임, 존중, 예의’ 등의 가치들은 종교에서 강조되는 윤리적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타인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너그러움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의 전통적 덕목은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교는 인성교육의 목적에 가장 가까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종교 창시자들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시자들의 삶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비의 태도로 타인을 존중하고 삶을 존중하는 실천하는 삶이었다. 이들의 삶은 종교교육이, 그리고 인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제 종교는 종교인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Kim, 2021: 75). 특히 무종교현상이 뉴노멀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과 종교’ 교과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교양 교과에 포함된다. 그동안 종교 교과는 ‘종교’, ‘생활과 종교’, ‘종교학’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종교’라는 교과목명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Kim, 2025: 19). ‘삶과 종교’ 교과는 인간 삶에 미친 종교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 종교가 갖는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Kim, 2025: 30). 이런 점은 ‘삶과 종교’는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종교적 주제와 사회 현상, 종교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교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과목을 설계하였다고 밝힌 교육부 고시 자료에 잘 드러난다(Lee, 2025: 4).

‘삶과 종교’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지혜로운 시민이며 이를 위한 교과의 목표는 첫째,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성찰한다. 둘째,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알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일상의 삶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고 익힌다. 셋째, 융합적 탐구를 통해 생활과 문화유산 안에 남겨진 종교적 특성과 종교적 아름다움을 발견·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넷째,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용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 의식을 기른다(Kim, 2025: 30). 그런데 ‘삶과 종교’ 교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덕성은 한편으로 보면 인성교육에서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금 인성교육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은 성품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종교심, 종교성, 성품 등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학습 또한 중요하다. 종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며, 종교교육이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Kim, 2022: 124). 그렇다면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종교성(religiosity)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종교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개별 종단의 ‘종교’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강조하는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교육을 통한 종교성 함양은 인성교육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종교교육이 특정 종파의 신앙 교육이나 개종을 염두에 둔 종교의 홍보에 치중한다면,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은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종교의 보편적 진리를 형성하고,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인격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종교 창시자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이들이 추구하였던 삶의 모습들에 대한 교육은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둘째,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교육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앞서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종교를 외면하는 많은 이유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었던 바,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구도하는 삶에 필요하고 이에 부합한다면 직책이 무슨 상관일 수 있겠는가. 기성세대가 교육의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종교교육은 미래 세대들에게 현실의 위선과 모순을 발견하게 만드는 계기만 제공할 뿐, 진정한 인격 함양의 장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를 위시하여 부모, 자녀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는 종교 단체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IV. 결론

무종교 현상을 걱정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무종교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종교인들도 많으며, 무종교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식으로 접근하는 종교인들도 또한 많을 것이다. 대중에게 무종교로의 진행 여부는 전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무종교로의 진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무종교로의 진행은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종교(신)을 믿지 않으면 사회가 혼탁해지고, 악이 성행하며, 불행해진다는 설교 내용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실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종교를 믿지 않아도 신을 찾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사회가 혼탁해졌다는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로 인한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있음을 목도할 뿐이다.

영국과 북유럽의 종교교육이 시민성 교육과 삶의 철학, 그리고 종교 문해력과 윤리교육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의 종교교육이 신앙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국의 종교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종교교육이 인성교육의 다른 이름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튼 종교와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시자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창시자가 추구하였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또한 중요하다. 신의 존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야만 종교지도자의 왜곡된 모습들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종교인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위계를 악용한 종교지도자들의 일탈 행위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는 무게감이 더 크게 와 닿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References

- C. Lemos & I. P. Gonzalez. (2021). Belief in God, Confidence in the Church and Secularization in Scandinavia. *Secularism and Nonreligion*. 10(5), 1-21.
- Cha, S. J. (2025). The Path from the Quagmire of War to Peace. *Culture and Politics*, 12(1). 167-196.30.
- Cheonji ilbo (2015. 3. 11.). 神 가르침보다 자기 행복 찾는 종교인 늘어. Retrieved 2025. 11. 17., from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618>
- Cheonji ilbo (2015. 3. 18.). 경전에 나온 ‘神·창조·심판’ 안 믿는다. Retrieved 2025. 11. 17., from [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44](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44)
- Cheonji ilbo (2015. 3. 25.). ‘교회·성당·사찰’ 거부하는 종교인 증가. Retrieved 2025. 11. 17., from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599>
- Cheonji ilbo (2015. 3. 30.). 돈·권력 집착하는 무너진 성직자 늘어 ‘꼴머리’. Retrieved 2025. 11. 17., from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305>
- Cheonji ilbo (2015. 3. 4.). 주머니 털어 ‘헌금’내는 교인… 배불리는 목회자. Retrieved 2025. 11. 17., from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673>
- Cheonji ilbo (2015. 3. 9.). 십일조는 교인 의무? 헌금 강조하는 개신교회. Retrieved 2025. 11. 17., from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69>
- Cheonji ilbo (2015. 4. 1.). 신뢰 떨어진 종교계… “종교 참뜻 찾으라”. Retrieved 2025. 11. 17., from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655>
- Cheonji ilbo (2015. 4. 5.). “‘종교인 본래의 뜻 벗어나’ 레드카드 든 국민들”. Retrieved 2025.

11. 17., from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164>
- Kim, Y. J. (2021). The Religious Publicness and the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 Jinrihoe in the Pandemic Er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6, 43-58.
- Koo, B. M. (2015). Practical Directions for Personalism-Oriented Human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9, 23-49.
- Lee, B. H. (2020). An Analysis on the Religion-related Crimes in Korea: reality and psychology, *Korean Police Studies*, 19, 167-188.
- Lee, H. S. (2002). A Study on the 9.11 Event and the Place of Tolerance in Islam. *Seok-Lim*, 36, 139-166.
- Lee, S. H. (2025). Current Status and Revitalization of Religious Educat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2022 Curriculum: Focusing on Won Buddhism-Affiliated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2, 1-16.
- Linda Woodhead (2017). The Rise of “No Religion”: Towards an Explanation. *Sociology of Religion*, 78(3), 247-262.
- M. Shaw., & T. L. Barry. (2025). The interface of religious education and citizenship in schools: Reflection on the contribution of a combined ‘worldviews approach1’. *Education,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1-17.
- Ministry of Education. 2019. Kristendomskundskab. Faghæfte. Copenhagen: Ministry of Education.
- Na, K. S., & Youn, J. K. (2015). Method to invigorate personality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9, 75-101.
- Oh, K. S. (2023). A Study on Peace Educ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BiH) after the Conflict. *Educational Research*, 25-60.
- P. R. Böwadt (2020). Religious Education in Denmark: Towards a More Multifaceted Subject?. *religions* 2020, 1-11.
- R. Freathy (2008). The triumph of religious education for citizenship in English schools, 1935-1949. *History of Education*, 37(2), 295-316.
- S. W. Lundasen. (2022). Religious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in a Secular Context: Evidence from Sweden on the Correlates of Attending Religious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33(3), 627-640.
- Seong, H. Y. (2015). Religion and Character Education for Youth: Focusing on “Character Education for Youth Program”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5, 277-302.

- Skolverket. (2019). Förslag till ändringar i kursplaner, kunskapskrav och ämnesplaner. Bilaga Religionskunskap.
- Woo, H. R. (2022). Nonreligion as a New Religion-Focusing on Recent Studies on Nonreligion in Western Academic Circl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46, 1-50.
- Yeon, K. S. (1999). Comparative Study on Minority in Asian Islamic Countries" ; Development Process of the Disputes of Minorities in Islamic Realm: Kosovo Disputes in the Balkan Peninsula.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The Middle East Studies* 18(2), 107-132.
- Yeon-hap news (2025. 10. 9). 사망자만 6만8천명... '파괴와 상흔' 2년만에 출구 찾는 가자전쟁. Retrieved 2025. 11. 10., from <https://buly.kr/5q8VoV8>
- 아민 말루프.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김미선 옮김 (2002). 서울: 아침이슬. (Translated in English) Amin Maalouf. Kim, M. S. (trans.) (2002). *The Crusades Seen Through the Eyes of an Arab*. Seoul: Achimyiseol.
- 이원규 (2001).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Translated in English) Lee, W. G. (2001).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eligion*. Seoul: Nanam.
- 이희수, 이원삼 (2001). 이슬람. 서울: 청아. (Translated in English) Lee, H. S., & Lee, W. S. (2001). *Islam*. Seoul: Cheong-A.
- 필 주커먼. 신 없는 사회. 김승욱 옮김 (2012). 서울: 마음산책. (Translated in English) P. Zuckerman. Kim, S. W. (trans.) (2012). *The godless society*. Seoul: mauemsanchack..